

광랜(FTTH) 왜 필요한가

IPTV 대용량 정보 고속도로 앞당긴다

(인터넷 TV)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내놓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KT의 100메가(Mbps)급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FTTH(Fiber To The Home) 상품인 '메가패스 스페셜' 가입자수는 3만6천640명.

광주·전남 가입자수는 더 작다. 광주 1천200명, 전남 800명 등 2천명이 전부다. 광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KT 전남본부는 "6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2만 4천가구에 광케이블이 깔렸다"고 밝혔다. 결국 2만2천 가구는 최고 속도 1G까지 낼 수 있는 속도 무제한의 '이우토반'을 이용할 수 없다는 셈이다. 속도 제한을 걸어놓을 정도로 소비자들을 의외라는 이유가 될까.

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시간선택 시청 현재 인터넷 서비스만으로 가격 부담 광주·전남지역 2,000여명 가입 그쳐

>1만원의 차이? =KT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은 크게 4종류. 10Mbps급의 전송 속도를 갖춘 '메가패스 라이트', '메가패스 프리미엄(50Mbps급)', 아파트 등 집단 시설 지구에만 설치되는 '엔토피아(100Mbps)'와 FTTH인 메가 패스 스페셜 등이다.

속도가 빠르면 10메가급 라이트 가입자가 1Gbps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데는 대략 8분, FTTH의 경우에는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광케이블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같은 '속'터지는 일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뭘까.

10메가급과 광케이블망을 이용하는 데는 1만원의 요금 차이가 난다. 10메가급인 '메가패스 라이트'는 월 3만원, FTTH는 월 4만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FTTH 가입자가 미미한 수준인 반면 라이트 가입자는 지난해 말 493만5천446명에서 올 6월말 542만9천176명으로 49만3천730명이나 늘었다. 1만원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지었다는 업계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또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은 10메가급이나 FTTH가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 느린 것만 참고 견디면 웬만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1만 원을 더 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KT를 제외한 하나모델레콤, LG와 파워콤 가입자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IPTV 상품화되면 달라진다 =가격 차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KT 전남본부측 입장이다.

KT 전남본부는 "대용량 정보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IPTV(인터넷



KT가 오는 10월 광주·전남지역에서 IPTV(인터넷 TV)인 메가TV 서비스를 시작한다. 메가TV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이 제외된다. 한 가입자가 집안에서 메가 TV를 시연해보고 있는 모습. (KT 전남본부 제공)

TV)인 메가TV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 FTTH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TV는 TV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 가입자가 영화·드라마·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 교육·엔터테인먼트, 은행·증권 서비스와 유아 서비스 등 골라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많고 아지고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시간 이동 방송'도 가능하다.

차량이 많아지는데 2차선 도로를 그대로 쓰게 되면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방송·통신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속도 제한이 없는 FTTH가 필요하다는 것.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Table with 3 columns: 구분, 계, 비율. Lists regional data for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across various provinces like Seoul, Busan, Daegu, etc.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제공 6월말)

KT '메가 TV' 10월 출시

KT 전남본부는 인터넷 TV 서비스인 '메가패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한 '메가 TV'로 이름을 바꿔 광주·전남지역에서 오는 10월 출시한다.

메가 TV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화·스포츠·여성 문화·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서비스와 방송 드라마, 등 2만여 개 콘텐츠가 제공된다. 다만 지상파 실시간 방송 서비스 기능은 빠졌다.

또 20여개의 일간신문을 볼 수 있는 'TV신문' 서비스를 비롯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신증권, 동양증권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TV로 이용할 수 있다.

물속서 1천번 떴다 붙어도 접착성 유지

광주과학기술원 출신 이해신씨

새로운 개념의 접착제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생의공학학을 전공 중인 이해신(34·사진)씨가 물속에서도 사용가능한 획기적인 접착제를 개발했다.

이씨의 연구논문(A reversible wet/dry adhesive inspired by mussels and geckos)은 최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지의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이씨가 표현의 종류와 공기 또는 수중 등 주위환경을 가리지 않고 붙었다 떼기를 1천번 정도 반복해도 접착성을 잃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개발한 접착제, 게켄(geckel)의 원리는 쉽게 말하자면 도마뱀 발바닥에 흡착의 접착물질을 입힌 것이다.

도마뱀은 발바닥에 나노크기(1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의 미세한 털을 수없이 가지고 있어 공기 중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천장 등에 매달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접착력을 가지면서, 포스트잇처럼 쉽게 떼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씨는 흡착의 접착 단백질이 수중에서도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 도마뱀의 발바닥과 흡착의 접착 단백질을 융합하면, 밴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1년간의 연구 끝에 성공했다.

/최태경기자 hwangtae@kwangju.co.kr

"미환급 휴대전화 휴면요금 찾아주세요"

'휴대전화 휴면요금(미환급액) 찾아주세요' 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지난 5월21일부터 50여일 운영한 결과, 미 환급액 297억원 중 37.3%인 110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미 환급액 조회를 하지 않거나 소액 등의 사유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해지 이후 동일 사업자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49억원(88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환급신청 절차없이 8-9월중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또 전원 자동이체 납부금액의 1% 수준을 할인해 주는 자동이체 할인의 경우 해

미 환급액 조회 및 신청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전화. Lists companies like SK Telecom, KT, LG Telecom and their refund procedures.

지 이후 할인이 적용돼 다수의 소액 미 환급액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해지 시점에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r

SK텔레콤 '투게더 팩' 출시

SK텔레콤은 휴대전화에 초고속인터넷과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각각 결합해 요금을 낮춘 '투게더 팩', 'T LOGIN 팩'을 30일 출시한다.

'투게더 팩'은 투게더 요금제와 티브로드, 씨엔넷, CJ케이블 등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상품. 휴대전화 기본요금의 경우 3천원 할인 및 5~20% 추가 요금 할인, 초고속인터넷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T LOGIN 팩'은 무선인터넷 T LOGIN과 MSO의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T LOGIN 요금을 10% 할인해주고 초고속인터넷도 추가로 3~1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다.

T LOGIN 레플러 요금제와 씨엔넷의 3년 약정 T팩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T LOGIN 팩'에 가입하면 각각 2만9천900원을 2만6천910원으로, 2만원을 1만8천원으로 할인받아 월 5천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houses, apartments, and land.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대지부동산', and '특급상가 매매·임대'. Each listing provides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features.



녹색연대, SKT 멜론서비스 손배소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최근 SK텔레콤의 온라인 음원서비스인 '멜론'이 폐쇄적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을 사용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소비자 선택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T가 멜론서비스로 다운받은 음원을 SKT 휴대전화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음원은 SKT 휴대전화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멜론 음원에 특정 DRM을 사용하는 기술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측 주장이다.

특히 작년말 S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으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한 반면 SKT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이런 폐쇄적인 DRM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DRM이 시장의 경쟁제한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음반사 중의 하나인 EMI는 이미 급선부터 DRM을 적용하지 않은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웹문서 편집 서비스

NHN의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워드 프로세서 수준의 문서 편집기능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DB) 첨부 기능 등을 제공하는 웹문서 편집기 '스마트 에디터'를 선보였다.

NHN은 '네이버 블로그 시즌2 에디터스마트'에서 스마트 에디터를 먼저 선보인 뒤 책과, 지식인, 메일 등 다른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 에디터는 ▲HTML 편집 ▲표 작성 ▲특수문자·인용구·이모티콘 삽입 ▲맞춤법 검사 ▲단축키 ▲인사·자동저장 ▲문서파일(DOC) 저장 등의 문서 편집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미지·동영상·네이버 지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업로드와 편집 기능을 지원하고 책과 영화·드라마·음악·상품·인물 등 네이버의 전문DB를 직접 검색해 첨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